

“국가지책 복지사업 전액 국가지원을”

황현 도의장 등 전국시도의회의장협, 국세:지방세 6:4 전환 · 지방소비세율 · 교부세율 인상요구도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가지책 복지사업의 전액 국가지원”을 요구했다.

28일 협의회에 따르면 내년엔 신설되는 아동수당 등 4개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 총액이 7조2,9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조2,800억 원 증가한다.

특히 아동수당은 6개월분으로 2019년 이후에는 4,294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전 북지역도 앞으로 5년간 도비 7,585억 원이 소요되고 이로 인한 추가부담액은 1,675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경기침체로 지방세수는 줄고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은 10년째 동결된 상태다. 때문에 재원보전 없는 국가지책 복지사업이 확대되면 도비 매칭 증가로 도 자체사업 추진 재원이 감소하고 국고 보조사업 도비 의무매칭 어려움 등 재정난이 가속될 수밖에 없다.

의장협의회는 이에 따라 신설되는 아동수당은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 기준 완화와 4대 기초 복지 등 국가사무는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전환하고,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으로 실질적인 재정을 보전하라고 요구했다.

황현 의장도 기초 복지사업에 지방비 의무 매칭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가용재원 부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역간 불평등이 심화된다며 재정분권 이행과 지방교부세 법정비율 인상, 고흥사당기부세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사업협약 28일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송하진 도지사,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문동신 군산시장, 변용석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을 비롯해 사업제안자인 이경택 보성산업(주) 대표, 원일우 ㈜한양 대표 등이 참석해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현행 지방자치제는 지방정부의 입법·행정·재정권 등이 상위법령에 의해 제한 받으면서 지방자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논의 중인 지방분권형 개헌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방정부와 의회에 실질적인 입법·재정·행정권이 보장되는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및 재정법 개정안 등 모두 31건이 발의됐으나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라며 “이들 법률안의 즉각 처리와 지난 10년간 국회와 정부, 지방정부, 의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선정·제시한 지방분권 3대 핵심과제(지방분권 강화, 조직·인력운영 자율성 확대, 자치역량 제고)와 24개 실천방안을

입법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개헌로드맵을 마련하고 헌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 지방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위는 헌법 개정 추진일정을 명백히 공개하고 지방의회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軍사이버사, 국정원 돈으로 인터넷 언론 운영”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댓글 공작을 벌인 의혹과 관련해 논란의 정점에 서 있는 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가 국정원 정보예산을 이용해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28일 “군 사이버사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정보예산을 이용해 ‘포인트뉴스’라는 이름의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또 군 사이버사는 ‘독도디펜스’ 등의 모바일게임을 제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이 애국 영화 제작 지원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사이버사도 고유 임무와 무관한 국내용 콘텐츠 제작으로 대남(對南) 심리전에 몰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사이버사 530 심리전단 소속 사업단은 수도권에 오피스텔을 임대해 댓글 공작과 인터넷 언론사 운영, 모바일 게임 개발 등 다양한 국내 여론몰이용 사업을 벌였다.

이 의원은 “이것이 방산의 일각일 수 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언론사를 통해 여론조작 유통을 꾀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 만큼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강조했다. /뉴시스

안호영 의원, 특별교부세 '34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8일 ‘완주군 지역지활사업 제조공장 건립’ 사업비 7억원, ‘무주군 정천 세월교 재가설’ 사업비 8억원 등 총 34억원의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은 지역현안 사업으로 ‘완주군 지역지활사업 제조공장 건립’ 7억원, ‘진안군 북합노인 복지타운 내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8억원, 그리고 재난안전 사업으로 ‘완주군 정보통신설비 내진보강공사’ 3억원, ‘무주군 정천 세월교 재가설공사’ 8억원, ‘장수군 한우지방공사 사면보강 개선공사’ 8억원 등이다.

안 의원은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들을 특별교부세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안전에 필요한 추가 교부세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이용호 의원, 행안부 특교세 28억원 확보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28일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원 최대 규모의 저수지인 금풍저수지 간이양수장 설치 사업에 9억 원이 확보됐다. 이 특교세 확보는 지난 6월 제9차 계절라 민생간담회 에서 주민들이 예산확보의 절실함을 토로해, 이 의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다.

임실은 임실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에 6억 원, 오수 대촌재 유지보수 공사에 2억 원, 임실지구 위험사면지구 정비 사업에 3억 원 등 총 11억 원이 확보됐다. 순창은 월명교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에 8억 원이 확보됐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불행 해소를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지역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文대통령 “평화 수호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 기반”

“3축체계, 軍 독자능력 핵심전력” “전작권 환수, 軍 체질 · 능력 발전”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차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 갈 수도 없다”고 평화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의 해군2함대 사령부에서 거행된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북한을 압도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군사

적 대비태세를 더욱 튼튼히 하는 가운데 긴장 고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군은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을 것”이라며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최전선에 군과 대통령은 늘 함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임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라며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우리에게 평화보다 더 귀중한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우리에게 많은 인내와 고통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의 평화의지를 꺾을 수 없

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고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한층 엄중해진 안보환경에 대응해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해 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반드시 군과 함께 국방개혁을 성공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더욱 강화하고 철저한 응징을 위한 첨단 응징능력 KMPRD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한국형 3축 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전작권전환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휘관부터 사병까지 애국심과 사기가 충만한 군대가 돼야 한다”며 “국방력은 무기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군의 사기는 국방력의 원천으로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모든 병폐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위사업 비리는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적이자 군 전체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적 행위”라며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비리가 완전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가치에 가치를 더한 행복을 전합니다

이웃사랑의 가치를 소중히여기는 완주 으뜸상품권이 완주 군민과 같이 행복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가사용한 으뜸상품권이 우리이웃의 행복지킴이입니다.

완주군 내 모든 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의 유통을 할인 판매

완주군 내 문화·관광·휴식·여가를 할인

완주군 내 음식점 및 숙박업소를 할인

Q 완주 으뜸상품권이 무엇인가요?

완주 으뜸상품권은 완주군 내에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로 유통업소를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규모 슈퍼, 음식점, 주유소, 미용실 등 관내 12개 농협과 업무 협약을 맺고 1,0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 완주 으뜸상품권 어디서 구매하나요?

지금바로 지역농협에서 구매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Q 왜? 완주 으뜸상품권을 사용해야 하나요?

우리지역에서의 소비가 늘어나야 내 자녀 우리 이웃들의 일자리가 생기며 내가 사용한 으뜸상품권이 완주경제를 살립니다.

문의 | 완주군 일자리경제과(290.2402) 및 읍면사무소